

제12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9. 22(화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남효, 김연진, 김영란, 박소희
박영화, 이영수, 정영훈, 호해란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7건 12작품(조각 6, 부조 2, 미디어 4)
[신규 10건, 재심 2건]
- ◆ 결 과 : 승인 9작품, 미승인 3작품

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- 2015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<위원장>
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

- 작품의 건수가 많은데 작품을 좀 나눠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미디어작품을 기준으로 해서 1~3번 작품과 미디어, 그리고 5~7번 작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.
- 동의하십니까?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작품 1-1~2는 위치변경만 하는 건가요?
- 아뇨 작품자체도 약간의 변경이 있고 작품위치 바꿨습니다. 이전 심의 결과 및 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
- 실제 작품과 사진상의 이미지가 다를 거 같습니다.
- 건물이 좀 안 좋은거 같습니다.
- 작품위치가 통로폭이 2m정도 밖에 안되어 설치 위치가 아닌거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땐 주출입구 옆에 외부로 설치하는 것이나 전의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.
- 예술작품이 웬지 역으로 쫓겨난 느낌입니다.
- 이전 심의시의 엘리베이터 자리가 오히려 더 좋았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건물디자인이 워낙에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. 작품과 맞지 않습니다.
- 1번에 대해 의견으로 공간에 비해서 작품이 더 크다, 작품의 위치가 문제가 있다. 예술성에 있어서는 구조와 건물과의 조화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 같다는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?
- 실제와 가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실제는 더 나을 거 같습니다.
-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시보다 복도가 35m로 길어서 실제 크기는 상세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요 장면만 볼 게 아니라 복도가 길다는 걸 감안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.
- 여백이 너무 없이 너무 짝 차니까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.

- 건축물 구조상 상가로 분양하는거 같은데 중간중간 사람들의 이동이 많을 거도 같고...
- 마곡 열린프라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두 번째 문정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.
- 높이가 8M나 되는데 작품 제작 방법 설명에서 수천개의 파이프조각을 용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M나 되는게 작품을 봉용접만으로는 안정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17페이지에 보이는 깨끗하게 내부가 보이는 작품이미지와는 다르게 나타날 거 같습니다.
- 같은 작가의 작품이라면 이런 작품이 삼각지에도 있습니다. 그 작품도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다.
- 작품은 좋은 거 같습니다. 구조적으로 문제없어야 한다는 코멘트는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
- 무게중심도 안전성이 있습니다.
- led조명 색깔이 한가지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.
-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의견이 더 없으시면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작품의 크기가 크네요
- 작품가격이 두 작품 합친 가격인지 궁금합니다.
- 가격도 적정한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
-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난한 작품인거 같습니다.
- 손해 안보려고 하다보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
- 가격에 비해서 현실성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.
- 앞세 같은 게 없어도 될 듯 두 세개만 있어도 자연스러울 거

같습니다.

- 가격이 문제가 안되는게 화강석이어서 걱정할 듯 합니다.
- 이 작품에 대해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. 옆에 작품이 조형적인 면에서 나무의 표현이 공간에 비해서 너무 많으므로 줄이거나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.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주시죠.
-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 그대로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.
- 그럼 먼저 1~3번 작품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할까요?
- 그냥 지금처럼 쪽쪽가는게 좋을 듯 합니다.
- 미디어 심사를 하겠습니다. 미디어가 야외에서 비바람이나 햇볕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. 보존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꼼꼼히 봐주셨으면 합니다.
- 작가들은 컨텐츠 계약을 하고 하드웨어부분을 따로 계약을 하는데요. 밑에 베어링 구조에 있어서는 제대로 설계를 한건 아닙니다. 안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박스가 스텐인데요. 키네틱 구조에서 제어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고장이 날 수 있구요.
- 야외에서 90도 회전한다는데 보존성의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.
- 산수화 풍경작품이 개별로 따로 있어서 화면에 보여지는 거랑 설치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.
- 작가가 8개로 나눠서 구성되도록 회전을 자주하는 거 같은데 회전을 했을 때만 볼수 있는 건데 누구도 그걸 다 보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.
- 정지되어 있을 때 남의 작품이 되는데 계속 움직여야한다는 게

문제일 듯 합니다.

- 작가는 콘텐츠비용 일부를 가지고 하드웨어 비용이 큰데 요즘은 패널 자체가 좋아서 방수나 방진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. 그런데 하부의 베어링이 제대로 설치가 안된 거 같습니다. 회전시 문제도 될 거 같아 회전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를 제어하는게 생각보다 어려운거가 될 수 있습니다.
- 얼마 전에 통영을 갔는데 유명인을 미디어작품으로 설치한건데 그게 유지보존이 안되어서 작품이 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. 개인적인 안전을 낸다면 건물에 넣는 게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동양화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떨어지면 광고판을 세워놓은 느낌입니다.
-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엔 별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거 같고 위치상 국회의사당앞인데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때 한 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. 장면을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는 각도를 염두한 거로 보여집니다.
- 건축 쪽에서 보면 건물이 박스 형태이고, 차가운 느낌인데 앞에 미술품도 사각이고 찬 느낌인데 하단부의 스테인리스도 매우 반짝거립니다. 재료를 바꿀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. 광택이 덜 나는 걸로 한다든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
- 스테인리스는 운전시 반짝거리어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.
- 무광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
- 케이블이 멀리 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콘텐츠는 문제가 없는데 하드웨어쪽에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.
-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. 계속 틀어 놓다면 열이 발생해서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.

- 시간대별로 할 거 같습니다.
- 불이 꺼졌을 때는 비석같이 보일수도 있습니다. 켜를 때는 화면이 검정색입니다.
- 꺼질 경우 화면이 검은 색인가요?
-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LED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영상 싱크를 맞추려면 통신을 해야 하는데 유선통신망은 문제가 있습니다.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처리 등의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.
- 제일 큰문제가 회전일 거 같습니다. 기계라서 고장이 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- 라스베가스같은 야외에서도 잘 되긴합니다.
-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매월 1회 점검하고 보수요청 접수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있습니다.
- 평생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.
- 하부구조가 이렇게 튀어 나올 필요가 없을 거 같거든요. 지금은 이 모양이 애매합니다.
- 오히려 하부가 더 부각이 되는 거 같습니다.
- 하드웨어 업체가 서툰거 같습니다.
- 열 빠지는 장치를 해놔야 할거 같습니다.
- 하드웨어 업체가 서툰거 같습니다. 전문적인 업체설계가 필요할 듯 합니다.
-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할 듯합니다.
-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. 시스템적으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. 통과가 된다면 설계 등 기술적인 면에 대해

전문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. 스테인레스 재질을 쓰는데 빛이 반사되어 운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광처리를 하든지 코팅을 하든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.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.

- 유지보존 계약서를 보면 kt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
- 하드웨어의 시스템 설계가 좀 미숙한 거 같아서 설계를 다시 받아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.
- 이 작품은 하드웨어의 시스템 설계를 다시 받아보는게 어떨까요. 위원분들 의견인데요. 다시 심의를 받을지 아니면 조건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인데요.
- 현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어 올라와 있습니다.
- 그러면 상관이 없겠네요. 하드웨어만 따로 평가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. 다음은 5번째 작품입니다.
- 작가경력서가 타당하나요?
- 잔디밭에 있긴 한데 안전성이 있나요? 심의도서에 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안전성이 의심이 됩니다.
- 세우는 건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토끼나 거북이 뒷다리에 아이들이 올라탔다가 넘어져 다칠까봐 걱정이다. 작가가 작품 자체는 안전하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.
- 아파트 이미지랑은 작품이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.
- 테마파크 게이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작가가 이런 작품을 그전부터 해왔다면 작가의 연장에서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.
- 위원장님이 작가경력을 좀 보고 작품의 연속성이 있다면 인정해 주어야 할 듯 합니다. 그렇지 않고 생똥맞게 만든 작품이면 심의 통과하면 안될 거 같습니다.

<위원장 5번 작품 작가 경력서 확인>

- 5번 작품 작가 경력서를 보면 작가는 전에도 비슷한 토끼나 동물 등의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. 많은 작품은 한 거 같지는 않고 작품의 연속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.
- 그럼 여섯 번째 작품 보시겠습니다. 2개 작품인데 다 실내 작품입니다. 복제가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작품 벽에 부조로 스테인레스 스틸을 이용해서 두께도 150mm로 꽃형태로 레이저커팅을 하신거 같습니다.
- 그럼 6번 작품 보시겠습니다. 나무를 이용하여 전통도자기 모양을 나무로 만든 오브제입니다.
- 이런 작품은 많이 봤는데요.
- 가격의 적정성은 어떤가요?
- 이 작품은 나무를 썬서 만든 작품입니다.
-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작품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.
- 이렇게 복제되는 경우의 가격의 적정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.
- 강남 같은 곳 특히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항상 둥근 모양이었는데 이번 작품은 좀 그전 모형에서 탈피한 거 같고 형상이 보이긴 하네요.
- 그리고 2번째 작품 벽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이용해서 설치된 꽃 형태의 작품입니다. 레이저커팅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네요
- 수퍼밀러와 샌딩을 단계적으로 하여 괜찮은 거 같습니다.
- 같은 로비에서 2개 작품이 같이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까?

- 상관없을거 같습니다. 스테인리스가 차가운 느낌인데 꽃모양으로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고 샌딩처리를 해서 차가운 느낌을 많이 완화시킨거 같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마지막 작품 보겠습니다.
- 3D작업을 하기가 용이한 시대라서 이런 작품은 좀 식상한 느낌이 듭니다. 작가의 시선이 완전히 빠져있고 3D 하는 사람이 디자인하는 느낌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 토끼와 거북이보다 더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
- 그렇게 따지면 디지털플라워가 더 개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. 오히려 기본적인 미술이론에는 맞아 들어가는거 같습니다.
- 기능의 문제도 섞여 있는 거죠.
- 미술작품이 관객들에게 끼치는 뭔가가 있어야하는데 좀 무감각한 느낌입니다.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식상하고 무감각스러운 느낌입니다.
-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?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..
- 가격도 4,000만원대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.
- 작품제목이 꿈꾸는 사람들인데...
- 가격을 높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좋을 듯 합니다.
- 건축주가 가격을 올린다고 작가에게 돌아가게 되지 않는게 문제죠.
- 미술작품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야 할 거 같습니다. 작품에 대한 비용을 공공기관에 내고 작품을 받아가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
- 외국같은 곳에서는 시에 돈을 내고 시에서는 모금된 비용을 특정위치에 근사한 작품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좋은 작품이 설치

되고 있습니다.

- 같이 작품하는 입장이지만 건축물 앞에 있는 게 너무 많아 오히려 공해같은 느낌입니다.
- 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.. 작가의 자격을 먼저 봐야하고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. 항상 공평성이 문제인거 같습니다.
- 그러면 신진작가가 설자리가 없습니다. 해외 심사위원 초빙도 한 방법인 듯하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습니다.
- 그럼 작품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면 각자 심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12개 작품 중 1-1~2번과 5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